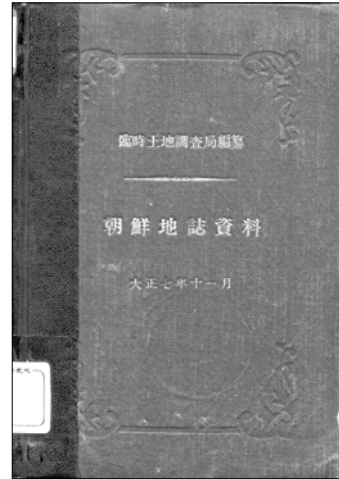


### ③ 朝鮮地誌資料 조선지리지자료

1919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438면 / 14.10-08 입59조 1919

일 제는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1911년부터 18년까지 9년 간에 걸쳐 『조선토지조사사업』(8장 참조)을 실시한다. 1918년에 편찬하여 1919년에 발간한 이 자료는 토지조사사업의 성과물을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물론 편찬한 곳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고 분량은 438면에 달한다.

내용은 총설과 행정구역, 하천(河川), 호소(湖沼), 산악(山岳), 해안선, 도서(島嶼) 및 경제 등 9개 부문이다. 국토면적은 면(面)별 면적을 토대로 시·군 면적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 11개, 동서 8개의 국토단면도도 있다.

또한 하천의 길이와 유역면적도 있다. 하천은 주요 하천별 경사도(傾斜度)도 있다. 하천의 유로연장(流路延長)도 압록강 790.35km, 한강 514.40km, 대동강 438.95km, 금강 401.40km란 사실이 이때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산악은 2,744m의 백두산을 비롯하여 29m의 만리성고개까지 총 2,925개의 산 높이가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라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측량의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 해안선 연장은 8,693.1km로 기록되어 있다. 조수간만의 차도 이때 조사한 것이 거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남북한)의 도서(島嶼)

수가 3,305개라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다. 더욱이 이 조사에서는 섬 하나하나의 면적은 물론 해안선 연장과 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의 높이까지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별 도서 수를 보면 경기 201, 충북 0, 충남 211, 전북 94, 전남 1,841, 경북 11, 경남 403, 황해 161, 평남 53, 평북 12, 강원 52, 함남 77, 함북이 29개로 되어 있으며 전남이 제일 많다.

경제부문에서는 전국 5일장의 위치와 개시날짜 및 연간 거래액과 주요 거래상품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군(郡) 단위로 전(田), 답(畓), 대지(垈地) 별로 1단보당 땅값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단보당 수확량도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야말로 일본식으로 말하면 ‘虎の巻(도라노마끼)’다.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방망이’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국토에 관한 비전서(秘傳書)라 할 수 있다. 필자는 1966년 1월 28일 인사동의 통문관(通文館)에서 이 자료를 사들고는 거의 며칠 동안 보고 또 보면서 국토를 내가 독차지한 것 같은 감회를 느낀 적이 있다.